

죽음

Tod

1. 개념정의

모든 생명현상이 그치는 것을 의미하는 독일어 Tod (죽음)은 고고지독어 tōd (8세기), 중고지 독어 tōt에서 발전된 단어이다. 죽음은 생명체의 세포분열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 또는 호흡운동과 심장운동의 완전한 정지 상태에서 그 기능을 다시 회생시킬 수 없을 때를 의미하지만 죽음의 시점을 정확하게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죽음에 대한 묘사는 시대에 따라 상이한 세계상을 보여준다. 죽음에 대한 의식은 특히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말기, 중세 말기, 그리고 20세기 초 등 역사적 변화의 시기에 더욱 강하고 다양하게 드러난다. 중세에는 현세를 경시하고 내세를 위한 내면의 준비로서 죽음을 인식했다. 바로크 시대에는 현세의 무상함 Vanitas과 불확실성에 대한 환멸에 맞서 기독교적 금욕주의 Stoicism을 내세우며 “죽음을 생각하라 memento mori”는 교훈을 강조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은 죽음을 통해 세상의 잘못된 현상을 뒤로 하고 현혹의 껍질을 벗으며 신성한 세계를 인식했다. 이 같은 의미에서 이 시대에 죽음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16세기에 이르기까지 문학에서 죽음의 장면이 갖는 의미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후 르네상스와 프랑스 고전주의 비극에서 죽음은 삶에 파괴적으로 개입하고 모든 희망을 냉정하게 단절해 버리는 것이었으나 20세기에 들어와 죽음은 구제자로서 새로운 가치를 얻게된다. 죽음은 비인간적 사회에서 다른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인간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이 같은 해방자로서의 죽음 이외에 작품 속에 자주 나타나는 죽음의 묘사는 다음과 같다.

- 1) 여러 가지 사회적 경향들의 징조로서 죽음이 나타난다.
- 2) 죽음이 인간의 삶을 개혁하는 동기가 된다.
- 3) 죽음은 인간의 자기 인식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으로 작용한다.
- 4) 죽음의 순간은 작품의 사회비판적 내용을 강화하고 사회적 폐해의 개혁을 주장한다.

죽음에 대한 묘사는 일반적으로 작가의 주관적인 경험이 그 중심에 있으나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인간의 고뇌와 사회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된 죽음 묘사는 여러 가지 상징과 우의적 표현을 통해 나타난다. 서양 문학에서 죽음에 관련된 일반적인 상징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해골, 특히 긴 낫 또는 칼과 모래시계를 든 해골 형상의 인물(Sensenmann). 이 인물은 중세에 기원을 둔 것으로 죽음을 의인화한 대표적 비유상이다. 이 인물은 큰 낫으로 마치 추수를 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수확물(죽음)을 거둬들인다. 생명을 종식시키는 이 수확 행위를 하는 그는 때로 다른 손에 모래시계를 들고 있는데 이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죽는다는 시간적 유한성을 명료하게 암시한다.

- 2) 눈부신 빛
- 3) 갑자기 찾아드는 밤
- 4) 도플갱어의 환상
- 5) 죽음의 춤



<베른트 노트케 Bernt Notke의 『죽음의 춤』 (탈린 Tallinn 박물관):

1460년에 그려진 퀴백의 마리엔교회에 있는 그림에 노트케가 글을 붙여서 다시 그린 그림>

- 6) 여명과 낙조
- 7) 잠
- 8) 침묵
- 9)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
- 10) 마지막 절규

2. 모티프 유형

1) 자연사 및 병사

인물은 병들고 늙음에 따라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인식한다. 이에 따라 인물의 고뇌가 증폭되고 상승된다. 그 고뇌는 지나온 삶의 경악스런 조건에 대한 것일 수도 있으며 회한일 수도 있다. 자신의 삶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음을 부정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인물의 인식은 점차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죽음을 받아들인다.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도 하며 이를 통해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내적인 확인 단계에 이른다. 죽음을 앞두고 인물은 자신의 양심을 솔직하게 드러내며 이를 통해 주변 인물들 또한 인간의 삶을 자각하게 된다. 인물의 삶의 곡선은 마지막에 진정한 의미를 얻는다. 자아실현, 성숙 등 인간의 발전과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죽어가는 인물은 인간의 삶에 대한 한가지 본보기가 되며 죽음 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경험하고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높은 단계에 이른다.

2) 자살

인물은 여러 가지 다양한 외부적 억압 요인과 정신적 내적 요인에 의해 죽음을 동경한다. 죽음은 인물을 억압적 삶에서 구원해 줄 해방자이자 유일한 출구로 인식된다. 인물의 자살은 그 원인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킨다. 자살 원인에 대한 논의는 작품의 주제가 된다. 개인의 고뇌, 인간 관계, 권력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들을 포함하는 사회비판적 논의가 확장된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주인공의 자살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사랑을 절대적 가치로 간주하고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자살을 택한 베르테르의 내면, 영혼의 상태는 결국 죽음 속에서 자유를 얻었는지 질문하게 만든다.

3) 타살

자살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살해의 원인과 살해의 상징적 의미가 작품의 전개와 주제 설정에 중심역할을 한다.

- 전쟁과 집단학살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전혀 방어력이 없는 상태에서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이 있다. 특히 전쟁과 종교의 결탁은 시대를 초월하여 끊임없이 남성적 폭력을 만들어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 이슬람 세력을 공격한 기독교 십자군 전쟁,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 세력간의 종교전쟁,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벌어진 유럽 이슬람교도에 대한 인종청소까지 탐욕, 착취, 권력은 종교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죽음은 이 같은 폭력의 결과로서 사회적, 역사적 논의의 대상이 된다.

혁명을 배경으로 한 하이너 뮐러의 <모저권총>에서는 혁명의 적을 죽여야 하는 사형집행인이 자신의 살인의 의미를 질문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혁명의 희생자들의 죽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 역사 속에 희생된 개인들의 죽음이 어떤 가치를 갖는 것인지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 인신공양

종교가 죽음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경우이다. 자신이 섬기는 신을 경배하기 위해 적 뿐만 아니라 자기 종족의 목숨을 바친다.

- 종교재판

이교도를 화형에 처한다.

- 개인 간의 은원관계, 재물욕, 권력욕 등에 의한 타살

클라이스트의 단편소설 『주워온 아이』는 은혜를 모르는 입양아를 양아버지가 죽인 사건이 중심이다. 전염병에서 구해 키운 입양아가 자신을 입양한 양부모를 몰락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양아버지는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원한을 갖게 되고, 특히 자신이 미리 물려준 재산을 되찾으려는 양아버지의 모습에서는 재물욕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들과 아버지의 대립에서는 권력관계가 드러난다.

4) 사고에 의한 죽음

죽음 자체 보다는 죽음을 눈앞에 두게 만든 사고의 원인과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주된 묘사 대상이 된다. 사고를 당한 인물들의 본성이 드러난다. 죽음을 앞둔 인물들 간의 관계와 개인의 태도에서 인간의 삶이 가진 본질이 묘사된다. 사고를 만들어낸 인물의 의식구조 및 사회 체제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이루어진다. 사고에 의한 죽음은 또한 다른 한 편으로 우연한 사고에 의한 타살일 수도 있다.

볼프강 바우어의 『찬란한 오후』는 아웃사이더인 네 명의 젊은이들이 한 방에 모여 오후 한 때를 마약과 섹스, 음악으로 보내면서 마지막에 한 명이 칼에 찔려 죽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마약으로 고조된 분위기에서 남자 둘이 여자 하나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여자는 방어하다가 우연히 손에 잡힌 과도로 한 남자를 찌르는 것이다. 단순한 사고에 의한 타살이지만 이 같은 일상의 단면을 통해 인간을 소외시키는 사회의 문제가 재조명된다.

3. 서사구조

	내용
원인	질병
	기아
	외부(사회)의 억압
	내적 갈등
	전쟁
	종교의식
	사고
	권태, 멜랑콜리
과정	질병과 기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외부의 억압에 대한 저항
	심리적인 내적 고뇌와 고통
	일탈행동
	주변 인물들과의 갈등 초래
	조직적인 음모
	우연한 사고
결과	자연사/ 사고사
	자살
	타살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
	억압 등 사회적, 정치적 구조에 대한 비판
	희생자에 대한 성찰
	종교에 대한 성찰

4.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찬란한 오후 Magic Afternoon』*

작가	볼프강 바우어 Wolfgang Bauer (1941-2005)
장르	희곡
생성년도	1967
등장인물	비르지트: 찰리의 여자친구 모니카: 죠의 여자친구 죤 찰리

4.1. 내용요약

인물은 모두 22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이들로 공간은 담배연기 자욱하고 잔뜩 어질러진 방안이다. 밖은 지저귀는 새소리가 아름다운 찬란한 여름날의 오후이다. 찰리와 죠는 모두 작가이고 비르지트는 찰리의 여자 친구, 모니카는 죠의 여자친구이다.

극은 방안에서 빈둥거리고 있는 찰리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는 비르지트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들은 저녁에 무엇을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말보로 담배를 피우고 팝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다. 죠가 찾아오지만 이들의 모습은 변화가 없다. 무의미한 대화의 연속뿐이다. 죠가 나가자 찰리와 비르지트는 춤

* 정민영(역): 찬란한 오후, 성균관대출판부, 2003.



〈'찬란한 오후', 박장렬연출, 2006년
9월, 우석레퍼토리극장〉

을 준다. 그러다가 이들의 춤은 점차 격한 행위로 옮겨간다. 가벼운 건드림이 구타로, 과격한 따귀로 변하고 결국 비르지트가 병을 집어던지고 할퀴는 등 상황은 전투와 같은 혼란으로 변화한다. 찰리와 비르지트가 방을 나간 사이 모니카와 조가 등장하고 앞 장면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이들은 사랑을 나누려고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가 서로 때리고 무는 싸움이 벌어진다. 결국 조가 모니카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모니카의 코뼈가 부러진다. 두 사람은 병원으로 가기 위해 나가고 다시 찰리와 비르지트가 들어온다. 이들은 다시 유명작가의 이름을 욕과 함께 부르며 책을 집어던지는 전투를 벌인다. 조가 다시 돌아오고 조와 찰리는 대마초를 피우고 음악을 들으며 환각상태에 빠져든다. 이들은 환각 상태는 광란의 행위로 옮겨간다. 이들은 벌거벗은 채 비르지트의 옷을 벗기려 하는 등 성적 폭

력을 가한다. 격분한 비르지트가 칼을 집어들고 싸움의 와중에 조를 찌른다. 조는 사망하고 비르지트는 냉정하게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떠난다. 당황한 찰리는 모니카의 전화를 받고 조가 그냥 가버렸다고 둘러댄 후 장롱 안으로 들어가 숨는다.

4.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사고에 의한 죽음

- 서사구조: 현대 사회의 무료한 일상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이 한 방에 모인다. 술과 담배, 음악 그리고 마약으로 이들은 하루를 보낸다. 마약에 취한 두 남자가 한 여자를 겁탈하는 놀이를 하는 중 방어하려는 여자의 칼에 한 남자가 죽는다.

원인	권태(현대 사회의 무료한 일상)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의 억압
과정	일탈행위 - 권태를 이기기 위한 자극 찾기 - 술 마시고 음악듣기, 마약하기, 섹스와 폭력
결과	사고사

5. 작품 목록

-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 (1774)
- 클라이스트 Heinrich von Kleist: 『주워온 아이 Der Findling』 (1811)
- 하우프트만 Gerhart Hauptmann: 『한넬레의 승천 Hanneles Himmelfahrt』 (1896)
- 호프만슈탈 Hugo von Hofmannsthal: 『바보와 죽음 Der Tor und der Tod』 (1893)
- 만 Thomas Mann: 『마의 산 Der Zauberberg』 (1924), 『베니스에서의 죽음 Der Tod in Venedig』 (1912)
- 첼란 Paul Celan: 『죽음의 푸가 Die Todesfuge』
- 보르헤르트 Wolfgang Borchert: 『문 밖에서 Draußen vor der Tür』 (1947)
- 브레히트 Bertolt Brecht: 『조처 Die Maßnahme』 (1930)
- 뷔히너 Georg Büchner: 『보이책 Woyzeck』 (1836)
- 프리쉬 Max Frisch: 『이제 그들은 다시 노래 부른다 Nun singen sie wieder』 (1945)
- 바우어 Wolfgang Bauer: 『찬란한 오후 Magic Afternoon』 (1967)
- 뮐러 Heiner Müller: 『모저권총 Mauser』 (1970), 『호라치 사람 Der Horatier』 (1968)

6. 연계 모티프

자살, 전쟁, 핵전쟁, 암흑, 해방, 자유, 죄, 저승방문, 세계의 종말, 학살, 폭력, 희생, 운명, 일몰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해방 + 희생 + 죽음
스토리	노동자 등 억압 받는 자들의 해방을 위해 혁명자들이 모인다. 혁명을 수행하던 중 한 동료는 혁명에 방해가 되자 그에게 죽을 것을 주문한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살한다. 그의 희생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문제가 된다.